

#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Jeongni-ugwe* Transcribed in Han-geul

옥 영 정(Ok, Young-Jung)\*\*

## ◁ 목 차 ▷

1. 서 언	4.2 병진년(1796)·정사년(1797)
2. 기존 소개자료 및 서지적 특징	탄신경하
3. 편찬주체와 작성시기	4.3 정사년(1797) 행행 기록
4. 한글본 「덩니의궤」의 구성 체제와 내용	4.4 화성성역
4.1 병진년(1796) 원행 기록	5. 결 언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프랑스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 「덩니의궤(整理儀軌)」에 대하여 서지학적 분석과 아울러 구성 체제와 내용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전체 48책 중 현재 12책(권29-36, 40, 46-48)이 전해진다.

우선 서지적 분석에서는 책의 형태적 특징과 함께 작성시기와 한글본 의궤의 의미를 구성체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글 언해의 역사적인 측면과 한자로 표기된 물품명, 지명, 각종 용어 등이 한글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또한 기존에 한문본 형태로만 남아있는 화성성역의궤 에 대한 한글자료 발굴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글본 「덩니의궤」 12책에 대한 역주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역주와 함께 전거문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즉 수록된 내용 가운데에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과 같은 역사서와 「園幸定例, 華城城役儀軌」 등의 관련 의궤에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 기록들과의 비교·검토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 구성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국어학뿐만 아니라 고문서학, 한문학, 역사학 등의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글본 「덩니의궤」의 내용은 당시에 간행된 「園幸乙卯整理儀軌」나 「華城城役儀軌」의 구성 체제와 달리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병진년(1794)과 정사년(1795)의 원행과 해경궁 흥씨에 대한 탄신경하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794년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H0002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gabinja@hanmail.net)

접수일: 2008년 5월 17일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3일

에 착공하여 1796년에 완공한 「화성성역」에 대한 것이다. 행사의 진행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으며 각종 물명에 대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要語 : 정리의궤, 한글, 화성성역의궤, 덩니의궤, 프랑스동양어학교, 원행정례, 한글의궤, 의궤

<ABSTRACT>

In this study, a bibliograph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Dyeongni-uirwe*(*Jeongni-uirwe*) transcribed in Han-geul and stor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 Civilizations(INALCO) library in France. Out of 48 volumes of this book, twelve volumes(29-36, 40, and 46-48) have remained.

At first, the physical features, the period of writing and the meaning of *Jeongni-uirwe* in Han-geul were bibliographically analyzed, based on its structure and contents. Such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is book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historical aspect of translation into Han-geul, and how to transcribe in Han-geul the names of objects, geographical names, and various term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could be investigated. Also, it means the discovery of Han-geul notes of *Hwaseong-seongyeog-uirwe* handed down only in Classical Chinese version.

In this study, these twelve volumes of *Dyeongni-uirwe* were translated with notes, and their authority documents were simultaneously examined. Since some contents were also recorded in other historical documents, including *Joseon-wangjo-sillok*, *Seungjeongwon-ilgi*, *Ilseong-nok* and other *Uigwe*, such as *Wonhaeng-jeongnye* and *Hwaseong-seongyeog-uirwe*, they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It is expected that an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structure could provide valuable basic data for such academic areas as archives,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history as well as Korean language.

The contents of *Jeongni-uirwe* in Han-geul were documented in the order of time, unlike *Wonhaeng-eulmyo-jeongni-uirwe* or *Hwaseong-seongyeog-uirwe* issued in the same period. *Jeongni-uirwe*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One section documents the celebration of Hyegyeong-gung Hong-ssi's birthday and 'Won-haeng', the royal trip in the years of Byeong-jin(1794) and Jeong-sa(1795). The other section records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which started in 1794 and was completed in 1796. From this book, the progresses of these events can be checked on in the order of time, and how to write the names of objects in Han-geul can be verified.

Key words : Jeongni-uirwe, Han-geul, Dyeongni-uirw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 Civilizations(INALCO), Hwaseong-seongyeog-uirwe, Uigwe, Han-geul uigwe

## 1. 서 언

조선시대 왕실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의궤는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일부 인쇄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필사본으로 현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글로 필사된 것은 순조 28년(1828)에 편찬된 「자경던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본 「덩니의궤(整理儀軌)」가 있다. 이는 프랑스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며, 해외에 소장된 한국 전적 자료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 그 목록이 알려졌을 뿐,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문화정치를 대표하는 정조대의 역점 사업인 ‘顯隆園 行幸’과 ‘華城城役’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게 수록된 한글본 자료로서, 모두 12권 12책(권29-36, 40, 46-48)이 현전한다.

한글본 「덩니의궤」의 내용은 당시에 간행된 「園幸乙卯整理儀軌」나 「華城城役儀軌」의 구성 체제와 다르게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의궤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 문서들을 베껴 기록한 등록과는 달리 사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座目을 비롯하여 啓辭, 別單, 傳敎 등 행사 관련 문서나 물품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 대상 자료인 한글본 「덩니의궤」는 등록의 형식과 동일하게 내용에 따른 분류 없이 날짜순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현릉원 행행’과 ‘화성성역’으로 내용을 구별하여 기록했을 뿐이다.

이 책에 대한 연구는 한글본 「덩니의궤」에 대한 서지적 분석, 탈초·역주 작업 및 교열, 역주 작업을 통한 구성 체제와 내용 분석이라는 세 분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한글본 「덩니의궤」 12책에 대한 본격적인 탈초·역주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여기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에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과 같은 역사서와 「園幸定例」, 「華城城役儀軌」 등의 관련 의궤에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산재하므로, 이

기록들과의 비교·검토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역주 작업을 통해 그 구성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서지학 뿐만 아니라 국어학, 고문서학, 한문학, 역사학 등의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소개자료 및 서지적 특징

한글본 「덩니의궤」는 1901년에 출간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韓國書誌」補遺版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整理儀軌

13책. 2절판(45×32cm). 매우 정성들인 필사본. 1조는 29-33, 2조는 34-36, 3조는 39-40, 4조는 46-48이 있는데, 완전본은 전 48책인 듯하다.  
(L.O.V. COR.I.21은 29-33, 34-36, 40, 46-48책을 소장).  
1796(1조)년과 1797(2조)년의 의식과 수원에서의 건립과 관계된 한글본문.  
39책은 그 외에도 「華城城役儀軌」(L.O.V. COR.I.273)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매우 세밀히 소개하는 그림을 실고 있다.<sup>1)</sup>

이 책은 모리스 꾸랑의 상관으로 1887년 한국의 첫 번째 프랑스 외교관으로 부임했던 빅토르 플랭 드 빨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의 소장본으로, 당시 13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스 꾸랑이 제39책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그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제외하고 나머지 12책을 프랑스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동양어학교 도서관의 소장고서에 대해서는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를 번역한 바있는 이희재 교수에 의해서 주제별 구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sup>2)</sup> 도서

1) 모리스 꾸랑 原著, 이희재 翻譯, 「韓國書誌-修訂翻譯版」(一潮閣, 1997), 793-794.

2) 이희재, 「프랑스 파리 東洋語學校 圖書館 所藏本の 主題別 特性和 意義」,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관측에서 작성한 정리번호 순으로 목록 617종과 이의 주제별 특징을 살폈으며, 목록에는 21번째로 필사본 「整理儀軌」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정병욱 선생이 1981년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동양학부에 머무르면서 이옥 교수(파리 대학)의 도움으로 프랑스 국립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학 관계 고문헌 목록 및 서지를 조사·작성한 바 있다. 이 기록이 한글학회에서 발간된 「문학한글」 제11·12호에 게재되었고, 이 가운데 한글본 「整理儀軌」 12책이 보인다. 정병욱 선생의 친필로 작성된 목록에는 이 책의 간략한 서지사항 즉 “COR1-21/ 「整理儀軌」 表紙에 ‘共四十八’로 기록되었음”이라는 기록과 함께 각 책의 소재목과 수록 대상 날짜가 일일이 기재되어 있다.<sup>3)</sup> 그 후, 海外典籍文化財研究會에서 1991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海外典籍調査事業의 일환으로, 2001년에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와 파리 기메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전적들이 조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된 한글본 「덩니의궤」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소개되었다.

덩니의궤<sup>4)</sup>

[編者未詳]. 寫本. 英祖19(1743)以後寫.

12卷12冊. 無郭, 無界, 半葉 9行 字數不定, 無魚尾.

36.5×23cm. 線裝. 楮紙.

表題: 整理儀軌

48卷 中 29, 30, 31, 32, 33, 34, 35, 36, 40, 46, 47, 48存卷.

備考: 整理字版 [園幸乙卯整理儀軌]가 있다. 한글 宮體로 精寫하고 表題는 寫字員 글씨임.

cor1-21, D7693

당시 조사팀은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가운데 98종 341책을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에는 寫本 74종, 刊印本 19종, 拓本 5종이 있었다. 그리고 현지 조사보다는 마이크로필름을 복제해오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3) 정병욱,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및 서지,” 문학한글 제11·12호(1998), 236-237.

4) 천혜봉, 이정섭, 박상국, “부록2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프랑스 기메박물관 및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 「文化財」 제36호(2003), 41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해외 전적 조사사업’의 도움으로 2002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제하였다.<sup>5)</sup> 필자 역시 이 분들 덕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글본 「덩니의궤」와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 3. 편찬주체와 작성시기

정조는 정조 18년(1794) 12월에 현릉원에 행차하는 일을 주관하는 整理所<sup>6)</sup>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정조 19년(1795) 1월 혜경궁 홍씨와 함께 현릉원에 행차하고 회갑잔치를 거행한 일을 ‘의궤’로 간행하기 위해 整理儀軌廳을 설치하였다. 또 정조는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성역 역시 정리의궤청에서 의궤로 간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整理儀軌’라는 서명은 정리의궤청에서 현릉원 행행과 화성성역에 관한 일을 모두 기록한 의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글본 「덩니의궤」는 한문을 한글로 직역하여 기록한 언해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이 책과 동일한 체재와 내용이 수록된 한문본 「덩니의궤」가 있음을 반증한다.

실물확인이 어렵지만 한문본 「整理儀軌」는 한글본과 마찬가지로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로, 정조 연간의 원행과 화성성역에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된 기록물로 여겨진다.

현재 한글본 「덩니의궤」는 결본이 많다. 정조 20년(1796)부터의 원행 기록만 남아있어서 한해전의 행사인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반해,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끝까지 수록되

5) 박상국, “부록1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文化財』 제36호(2003), 383-385.

6) 整理의 의미에 대하여 병진원행의 “외정리소절목”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 “정리(整理)라 이름함은 度支에서 시작되었으니, 大駕가 행행하시어 밤을 지내는 곳에 判度支(호조 판서)가 기일 전에 먼저 나아가 行殿의 房櫳, 자리, 장막, 궤, 서안 등을 정돈하며 수리하여 새롭게 함이 법으로 만든 뜻에도 진실로 공경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園을 옮기신 후로 화성 행행 때 이틀 밤 머무시고 환궁하시어 해마다 常例로 하시되 또 혹은 3-4일이나 5-6일 밤을 머물기도 하시니, 그 정리할 일이 실로 행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덩니의궤」 권32 제7장 외정리소절목).

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책의 전체적 구성이 48책으로 그 중 38책까지가 행행과 탄신경하, 39책부터는 성역에 관한 내용이다.<sup>7)</sup> 제37, 38책이 결본이기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정사년(1797)행행이 제36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때<sup>8)</sup> 제37, 38권은 정사년의 내용을 연속으로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한글본 「덩니의궤」은 원행과 화성성역이 끝난 후인 1797년 9월 이후부터 활자본 「화성성역의궤」가 편찬 완료된 1800년 5월 이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문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활자본으로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의 범례내용<sup>9)</sup>이 있다. 즉 “등본의궤”가 작성되었다는 것과 「을묘정리의궤」의 체제와 다른 「화성성역의궤」의 초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한글본 「덩니의궤」의 내용에 「화성성역의궤」의 편찬완료 당시의 기록까지 남아있는데<sup>10)</sup> 이는 화성성역의궤의 체제가 아니라 이전에 “등

7) 모리스 꾸랑이 언급한 내용으로 “제39책이 「華城城役儀軌 (L.O.V. COR.I.273)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매우 세밀히 소개하는 그림을 싣고 있다”고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8) 제36권의 마지막 날짜는 1797년 8월 16일 이다. 이 날은 정조가 8월 15일 김포의 장릉을 찾아 본 뒤 화성의 현릉원을 향하여 가는 날이다. 덩니의궤 각 구성체제로 미루어 보았을 때 행행하는 과정과 환궁이후의 내용이 다음 권에 수록되어야 한다.

9) 華城城役儀軌 凡例. “정조대왕 을묘년에 이르러 정리의궤청을 두고, 관각의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園幸儀軌 를 편찬·발간케 하여 나라 안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그 일을 중시해서 오래도록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병진년(1796) 가을에 화성 쌓는 공사가 끝나자 모두 일을 감독 관리할 때의 舊例에 따라서 謄本儀軌를 작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등록을 갖추어 본부에서의 옛날 사례를 참고하는 자료로 삼게 하였다. 그 뒤에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어, 그 등본을 가지고 수정을 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려 하였는데, 초고를 끝내기 전에 정리의궤가 간행되었다. 의례가 이것과는 맞지 않는 데가 많았지만, 성립된 규정에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만든 초고를 폐기하고 모든 것을 정리의궤를 모범으로 삼아서 시정하였다. 무릇 초고를 세 번 바뀌서 책이 완성되었다.”

10) 11월 초9일 수원부 유수 趙心泰가 아뢰는 啓辭이다.

“본 수원부 성역이 이제 완성을 고하였사오니, 儀軌를 차례로 거행해야 하옵니다. 궁중에 들이는 것은 몇 벌이며 각 처에 나누어 보관할 것 또한 몇 벌이 될 지를 지금 합당하게 정한 뒤에 가히 헤아려 수정할 것이기에 감히 아뢰옵나이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궤에 들이는 것은 세 벌이요, 세 곳의 史庫, 규장각, 승정원, 비변사, 병조 및 장용내외영에 각각 한 벌씩 보관하라. 그리고 총리대신, 감동당상, 감동도청에게 각 한 벌씩 반사하되, 整理鑄字로 인출하여 금년 내에 주도록 하라.” 하셨다.

본의궤”의 체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날짜순으로 기록된 한글본 「덩니의궤」가 이 때 작성된 “등본의궤”나 “화성성역의 초고”를 저본으로 삼은 언해본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기까지는 확정짓기가 어렵다.

원행에 관한 본격적인 기록은 정조 13년(1789) 9월에 정조가 「園幸定例」를 편찬하여 올리도록 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원행정례」는 莊祖의 永祐園이 水原花山으로 遷奉되어 현릉원이라 명명되면서 찾아진 원행의 제반사항을 정제화하여 수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1789년 9월부터 1800년 1월 사이의 원행에 관련된 傳敎, 甘結, 啓辭를 비롯하여 陪從百官, 盤纏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 「덩니의궤」에 나타난 현릉원 행행 관련 기록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현릉원행행은 정조 14년(1790) 1월부터 매년 빠짐없이 거행되는 국가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으므로, 「덩니의궤」에는 정조의 현릉원 행행이 모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은 현릉원 행행을 주관했던 整理所에서 담당했을 것이고, 정리소에서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덩니의궤」라는 책자 형태로 만든 곳은 整理儀軌廳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글본 「덩니의궤」 중 병진원행의 내용 중에 1796년 2월 4일 봉상제조 李晩秀가 올린 啓辭에 대해 「園幸儀軌」를 앞으로 정리소에서 편찬하는 것을 아뢰었다는 것으로도<sup>11)</sup> 확인된다. 이 당시 편찬의 추체를 바꾼 이유는 「원행정례」의 글이 너무 소략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글본 「덩니의궤」는 「원행정례」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소에서 정조의 전교와 각 관청의 계사, 감결 등의 원문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찾아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각 관청의 등록 등 다양한 사료

11) 봉상 제도(奉常提調) 니만수(李晩秀) 소계(所啓)라 민년(每年) 원행의궤(園幸儀軌)를 바야흐로 덩니소(整理所)로 편찬(編次)호옵는디라 원행 절치(園幸節次) | 향사(享祀)의서동(重)호옵미 업스온디 데품(祭品)과 특식(祝式)과 [격] 제기(祭器)와 향관(享官)과 포던 반전(鋪陳盤纏) 등 여러가지 사례(事例)의 여러 번 품지(稟裁)호와 나도와 단당(典章)이 되온 조건(條件)을 덩네(定例) 글의 작서히 올니디 못호와스오니 너모 소략(疏略)호온디라 일테(一體)로 편입(編入)호옵를 마디 못호올디니 신이 외람(猥濫)이 태상(太上)의 모침(冒忝)호와 마춤 [격] 연석(筵席)의 올나습는 고로 감히 양달(仰達)호옵는이다. 상왈(上曰) 의위지(依爲之)(「덩니의궤」 권31 제39장).

들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야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으로 미룬다.

한글로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1828년의 한글본 「자경년진작정례의궤」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일 것이다. 「자경년진작정례의궤」는 중전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왕실 간행물의 언해작업의 1차적 목적은 대체로 왕실 내부의 여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덩니의궤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 4. 한글본 「덩니의궤」의 구성 체제와 내용

한글본 「덩니의궤」는 12권 12책으로, 전체 48권 가운데 권29, 30, 31, 32, 33, 34, 35, 36, 40, 46, 47, 48이 현전하고 있다. 이 책은 한글 반흘림체로 정서된 필사본으로서 表題는 ‘整理儀軌’로, 卷首題는 ‘덩니의궤’로 표기되어 있다. 정조 19년(1795)에 설치된 整理儀軌廳에서 현릉원 행행과 화성성역에 관한 일을 각각 의궤로 간행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모아 기록한 의궤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내용상 크게 ‘園幸’과 ‘華城城役’으로 구분된다. 정조는 1789년에 사도 세자의 묘소를 水原府가 있던 花山 아래로 옮기고 顯隆園이라 명명한 이후 매년 수원 즉 화성으로 행차하였다. ‘園幸’부분은 해마다 현릉원으로 행차하였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권29, 30, 31, 32의 4책에는 정조 20년(1796)의 園幸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권33 1책에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탄신을 경하하는 잔치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 34, 35, 36의 3책에는 정조 21년(1797)의 園幸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華城城役’부분에는 1794년 1월부터 정조 20년(1796) 9월까지 진행되었던 화성의 성곽 축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권40 1책에는 정조 17년(1793) 12월부터 정조18년(1794) 4월까지 화성 성역과 관련된 제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권46, 47, 48 3책에는

정조 19년(1795) 9월부터 정조 21년(1797) 1월 29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글본「整理儀軌」 12책의 개요

	권수	소제목	수록 대상 날짜
1	권29	병진 원형 데일	1796(정조 20).1.2. ~ 1.21.
2	권30	병진 원형 데이	1796(정조 20).1.22. ~ 1.24.
3	권31	병진 원형 데삼	1796(정조 20).1.24. ~ 2.14.
4	권32	병진 원형 데스	1796(정조 20).2.14.
5	권33	병진 탄신경하	1796(정조 20).6.11. ~ 윤6.18.
6	권34	덩스츄 원형	1797(정조 21).1.25. ~ 2.13.
7	권35	덩스츄 장능 현릉원 횡형 데일	1796(정조 20).9.6. ~ 9.25. 1797(정조 21).8.3. ~ 8.14.
8	권36	덩스츄 장능 현릉원 횡형 데이	1797(정조 21).8.15. ~ 8.16.
9	권40	화성성역 데일	1793(정조 17).12.6. ~ 1794(정조 18).4.6.
10	권46	화성성역 데칠	1795(정조 19).9.27. ~ 1796(정조 20).4.14.
11	권47	화성성역 데팔	1796(정조 20).4.16. ~ 8.19.
12	권48	화성성역 데구	1796(정조 20).8.21. ~ 1797(정조 21).1.29.

위의 표를 분석해 보면 전체 48책의 구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정조는 정조 13년(1789) 10월 현릉원 천봉이후 이듬해 2월부터 정조 24년(1800)에 이르기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능행하였다.<sup>12)</sup> 권차별로 기록된 순서가 원행의 순서임을 알 수 있고 병진년과 정사년의 경우처럼 1차례의 원행마다 2-5권의 책자에 수록한 것으로 평균 4권으로 추정해보면 제1차-7차의 원행이 권1부터 권28까지 수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병진년 원행의 경우처럼 즉 권29에 수록된 병진년 원행은 제8차 원행에 해당하며 이어지는 정사년 봄의 원행은 제 9차, 같은 해 가을의 원행은 제 10차에 해당한다. 실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권37과 38에 제10차의 원행의 기록이 이어서 담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1차-7차의 원행이 권1부터 권28까지 수록되었을 것으로

12) 정조의 화성 능행 관련기록은 최홍규, 「정조의 화성경영 연구」(서울: 일지사, 2005). 에 보다 상세하다.

여겨진다.

또한 꾸랑의 서지 기술내용을 참고하면 제39책이 「華城城役儀軌」와 같은 그림을 싣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 39책부터 48책에 이르는 10책이 화성성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현진하지 않는 권41부터 권45까지가 화성성역 제2-6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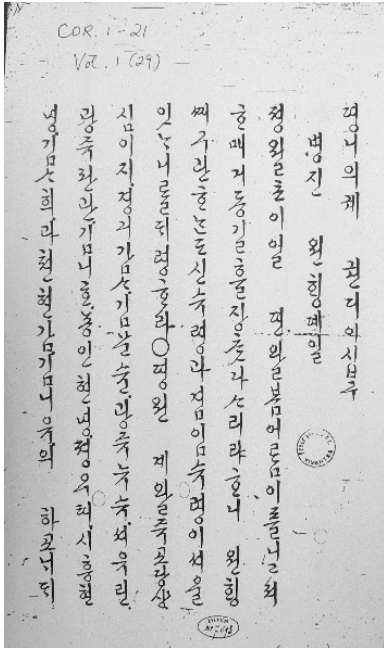
따라서 한글본 덩니의궤는 10차에 걸친 원행과 화성성역에 관한 내용을 모두 48책으로 만들어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구성 체제는 항목별로 구분되어 편찬된 기존의 의궤와는 달리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날짜에는 원행이나 화성성역과 관련된 정조의 전교나 일을 담당하는 신하들의 狀啓 및 別單 등의 문서들과 당시 정조가 쓴 御製詩나 致祭文, 혹은 신하들이 지은 詩 등 각종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등을 비롯한 역사서와 華城城役儀軌를 비롯한 의궤 등 문헌 속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책과 다른 문헌들 간의 원문 비교를 통해 본 한글본 「덩니의궤」가 어떠한 과정으로 편찬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 책의 내용과 동일한 행사를 수록한 내용의 비교의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문본에 대한 한글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한글 표기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3차에 걸친 원행의 전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병진년과 정사년의 제8차 및 제9차, 제10차 원행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고 화성성역도 본문의 첫 권과 마지막권이 남아있어서 실제 48책으로 구성된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화성성역은 한문본으로만 알려진 “화성성역의궤”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한글본 “화성성역의궤”의 발견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4.1 병진년(1796) 원행 기록

권29-32는 정조 20년(1796) 병진년의 원행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96년의 원행은 정조의 제8차 원행으로 1월 20일(이하 날짜는 모두 음력임)



거행하였다. 한글본 덩니의궤에는 원행에 앞서 이행된 여러 전교와 전령, 계사, 장계 등의 내용이 1월 2일부터 2월 14일 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1월 20일부터 1월 24일 까지의 내용이 실제로 원행이 이루어진 기간이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각종 원행관련 기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원행기간을 중심으로 원행준비, 원행, 원행이후로 구분 된다. 원행준비는 1월 2일부터 기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원행담당 수령을 대령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병진년 원행에 대한 독립된 기록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한글본 「덩니의궤」에 실린 기록은 당시의 원행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1월 17일에 기록된 군령에 의하면

<그림 1> 「덩니의궤」 권29 병진년 원행의 첫장

정월 20일에 출궁(出宮)하시어 시흥현 행궁에서 잠시 쉬시면서 점심을 드시고 화성 행궁에서 주무시며, 21일에 원소(園所)에 전알하여 직접 계사를 지내시고 화성 행궁에 돌아와 주무시며, 22일에 동장대(東將臺)에 왕립하시어 시열(試閱)하여 시험으로 활을 쏘신 뒤에 행궁에서 주무시며, 23일에 시흥현 행궁에서 잠시 쉬시면서 점심을 드시고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들르셨다가 환궁(還宮)하실 것이다.<sup>13)</sup>

13) 「덩니의궤」 권29 제13장. 군령 금 정월이십일 출궁호오샤 시흥현 행궁의 듀정호읍시고

라고 기록하였다. 각 원행에 대한 기록의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의 군령을 수록하여 전체 원행의 대략적인 일정을 요약하고 있다. 병진년 원행의 경우는 1월 23일에 비가 내려 예정보다 하루 뒤인 1월 24일에 환궁하였다.

원행한 날에는 수라, 소반과 다담상 등을 饌品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기록하고 있다. 각 날짜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으며 이는 음식의 한글표기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1월 20일의 찬품은 아침수라상, 소반과, 점심수라상, 저녁수라상, 밤다담상 등 다섯 차례였으며 21일과 22일에는 아침수라상 이전에 죽 수라상을 포함하여 여섯차례, 23일에는 소반과, 밤 다담상이 없는 네차례, 환궁하는 24일에는 시흥참에서의 점심수라상까지 세차례의 찬품을 수록하고 있다. 원행 첫날인 1월 20일의 찬품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참(始興站) 아침 수라상 1상 14기

콩밥1기 양숙탕1기 골탕조치1기 잡산적·평적1기 양지머리1기 전유화1기  
연저찜1기 연어알1기 민어·생선알·약포·치포·전복1기 쉬박지1기 묶은 김  
치1기 각색 삶은 나물1기 초장1기 청장1기

화성참(華城站) 소반과(小盤果) 1상 18기

떡1기 메밀국수1기 말린정과1기 수정과1기 조란·울란1기 배·포도1기 유  
자·석류·감자1기 돼지고기·저태1기 생선만두1기 연저찜1기 날전복1기 평  
탕1기 저태탕1기 열구자탕1기 꿀1기 초장1기 겨자즙1기 젓국 1기

점심 수라상 1상 18기

팔말로 지은 밥1기[팔밥 대령] 소로장국1기 계탕1기 전복찜1기 좌반1기 연어  
알·쌀새우1기 설야적 1기 찐김치1기 묶은김치1기 잡채1기 청장1기

결반

잡느름적1기 수육1기 열구자탕1기 전치수1기 무장1기 식혜1기 정과1기 초  
장1기

저녁 수라상 1상 18기

---

화성 향궁의 숙소호읍시고 이십일일 원소의 던알 친제호읍시고 화성 향궁의 환예 숙소호읍  
시고 이십일일 동장당의 넘어호요사 시열 시사호읍신후 향궁 숙소호읍시고 이십삼일 시흥  
현 향궁의 듀정호읍시고 농양 봉저정의 녁님호읍시고 환궁.

쌀밥1기[팥밥 대령] 가자미국1기 골탕1기 팥찜1기 좌반1기 감동젓1기 양산  
적·우미적1기 찐김치1기 묶은김치1기 각색생채1기 청장1기 겨자즙1기  
겉반  
족편·평편육1기 전복회1기 열구자탕1기 전치수1기 청국장1기 식혜1기 정  
과1기 초장1기

밤 다담상 1상 18기  
떡1기 약밥1기 김치만두1기 말린정과1기 수정과1기 배·대추1기 준수1기  
포도1기 돼지머리·저태1기 전치수1기 어채1기 붕어찜1기 금중탕1기 대합탕1  
기 열구자탕1기 겨자즙1기 초장1기 꿀1기 젓국1기  
난로  
쇠고기1기 각색과일1기 말린정과1기 수정과1기 메밀국수1기 고명1기 완자1  
기 볶은장1기 계란1기 장슈1기 납골1좌 납골 자1개 공기2좌 화로1좌<sup>14)</sup>

- 14) 『명니의궤』 권29 제36장 시흥 참 도 슈라 일상 십스기  
두반 일기 양숙탕 일기 골탕조치 일기 잡산적 싱치적 일기 양디두 일기 전유화 일기 연저증  
일기 년난 일기 민어 어란 약포 치포 전복 일기 교침치 일기 담침치 일기 각식 숙치 일기  
초장 일기 청장 일기  
화성 참 쇼반 과일상 십팔기  
병 일기 빅면 일기 건정과 일기 슈정과 일기 조란 놀난 일기 싱니 포도 일기 뉴즈 석뉴  
감즈 일기 저육 저티 일기 어만두 일기 연저증 일기 싱복 일기 싱치탕 일기 저티탕 일기  
열구즈탕 일기 청 일기 초장 일기 계즈즙 일기 젓국 일기  
오 슈라 일상 십팔기  
꽃물반 일기<만두반 더령> 쇼로장이깅 일기 계탕 일기 싱복증 일기 좌반 일기 년난 세하  
일기 설야떡 일기 판침치 일기 담침치 일기 잡치 일기 청장 일기  
협반  
잡느름적 일기 숙육 일기 열구즈탕 일기 전치수 일기 무장 일기 식혜 일기 정과 일기  
초장 일기  
석 슈라 일상 십팔기  
빅반 일기<만두반 더령> 가즈미깅 일기 골탕 일기 싱치증 일기 좌반 일기 감동젓 일기  
양산적 우미적 일기 판침치 일기 담침치 일기 각식 싱치 일기 청장 일기 계즈즙 일기  
협반  
족편 싱치편 일기 싱복회 일기 열구즈탕 일기 전치수 일기 청국장 일기 식혜 일기 정과  
일기 초장 일기  
야 다담 일상 십팔기  
병 일기 약반 일기 침침만두 일기 건정과 일기 슈정과 일기 싱니 대조 일기 준수 일기  
포도 일기 저두저티 일기 전치수 일기 어치 일기 부어증 일기 금중탕 일기 대합탕 일기  
열구즈탕 일기 계즈즙 일기 초장 일기 청 일기 젓국 일기  
란노

상의 그릇 수는 14기와 18기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20기인 수라도 있다. 원행당시의 찬품에 대한 한글표기와 더불어 시간대별로 왕의 찬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병진년 원행 내에서 각 책의 권차 구분은 특별히 날짜별이나 사안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날짜의 내용이 다른 권으로 구분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행사와 관련된 내용 중 正祖의 傳敎와 承政院·兵曹·水原留守 등의 啓辭 등 중앙관청에서 작성하거나 수신한 문서들은 그 원문을 관찬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일성록」과 「승정원일기」는 국정참고용 기록이라 불릴 정도로 그 내용이 상세한 것이 특징인데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덩니의궤」의 편찬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편찬 당시에 이와 같은 관찬 사료가 전거문헌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글로 諺書되기 이전에 한문 원문을 옮겨서 작성한 것이며 따라서 「덩니의궤」는 한문 원문에 대한 한글의 번역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正祖의 口傳下敎나 壯勇內外使의 傳令 및 節目, 園幸時 陪從百官, 盤纏, 園幸 顛末, 饌品 등 원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로서 관찬사료의 성격에는 맞지 않은 것들은 수록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기록들은 이 일들을 주관했던 관청에 보관되어 있던 성책된 문서나 등록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듯하나, 확실한 근거 자료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히려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병진년원행의 내용 중에 갱진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언서한 것이 있는데, 1796년 1월 24일에 정조의 어제시를 수록하고 이에 따른 여러 신하들의 賡進詩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날은 비가 내려 하루 더 머무르게 되었고 정조는 율시를 지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적었다. 정조는 “대가를 따르는 관리와 도성에

---

황육 일기 각식 실과 일기 건정과 일기 수정과 일기 빅면 일기 고명 일기 완즈 일기 다린장 일기 계란 일기 장슈 일기 님골 일좌 님골 자 일기 공기 이좌 화로 일좌

남은 모든 관리들이 모두 廢進하되 재 城자만 押韻하고 남은 세 구는 뜻에 따라 지어 들이라” 지시하였고 이를 따랐다.<sup>15)</sup> 시를 쓴 신하는 모두 27명이었다.

어제시는 한글음만 적고 뜻을 諺書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갱진시는 모두 한글로 그 음을 적고 뜻까지 한글로 번역하였다. 번역문은 보다 작은 글씨로 적고 있으며 당시에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된 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다.<sup>16)</sup>

병진년 원행의궤의 마지막은 1796년 2월 14일에 덩니의궤청에서 '화성 행궁에 있는 내용오고 및 외정리소, 외당고, 외별고의 각 항 절목, 내영 별잉고 절목, 원행시 등계절목'을 별단으로 제출하고, 책응하는 모든 일을 정식으로 삼는 절목을 작성하여 올리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조는 절목을 수정하거나 첨입한 뒤 인출하고, 「덩니의궤」와 「통고」에 수록할 것을 명하였다. 권 32의 전체가 이 절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sup>17)</sup> 대부분의 내용은 「일성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원행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이나 음식의 한글명칭은 물론 가격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그 상세한 내역이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예컨대 “수라반과차수정례”에는 수원부에 납신 당일, 원소에 납시는 날, 수원

15) 덩니의궤 권30 제31장 ...“금형(今行)의 석년(昔年) 탄일(誕日)을 당호와 디디(遲遲)호야 찌나지 못호는 즘음의 혼 비 또한 일올아는 듯호야 다시 일일(一日)을 머므르니 일이 또한 우연(偶然)치 아니호디라 희마다 년노(輦路)의 이 디(臺)를 넘어(臨御)호매 회황(徊徨)호야 감모(感慕)호호미 더은디라 이 혼 늘시(律詩)를 일위써 기록(記錄)호노니 제삼구(第三句)의 유유칠분성(猶有七分成)이라 호미 곳 실제의 말이라 슈가관(隨駕官)과 뉴도 빅관(留都百官)이 일테(一體)로 갱진(廢進)호디 지 성즈(城字)만 압운(押韻)호고 남은 세 구는 임의로 지어 드리라 호호시다.”

16) 혜경궁 홍씨의 탄신경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권33에서도 같은 체제의 갱진시를 신고 있다.

17) 수록된 각 절목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궁장윤과성상과수절목(宮牆輪把城上派守節目), 향군설치절목(鄉軍設置節目), 외정리소 절목(外整理所節目), 내용고절목(內用庫節目), 관천고절목(筵千庫節目), 외당고절목(外帑庫節目), 외별고절목(外別庫節目), 수라반과차수정례(水刺盤果次數定例), 수라반과기수정례(水刺盤果器數定例), 수라반과기명정례(水刺盤果器皿定例), 별약과식(別藥果食), 조과소출식(造果所出式), 조과대전마련식(造果代錢磨鍊式), 환주식(還酒式), 환주소출식(還酒所出式), 환주대전마련식(還酒代錢磨鍊式), 삭선식(朔膳式), 삭선봉과잡미식(朔膳封雜費式), 각신 이하 반공식(閣臣以下飯供式), 각종절가식(各種折價式), 급축식(給縮式), 외별고 미전(米錢)이하회록 각종, 어공각색반기명(御供各色盤器皿), 연상소용기명(宴床所用器皿), 별잉고절목(別剩庫節目) 별잉고식례(別剩庫式例)

부에 돌아온 뒤, 환궁하는 날 등으로 구분하여 수라의 차수를 정하고 있는데,<sup>18)</sup> 이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병진년 원행에 행하여진 수라의 유형, 횟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정례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라반과기수정례”는 대반과와 소반과로 구분하여 음식이 담기는 그릇의 수를 정하였다. 또한 “수라반과기명정례”에는 수라상에 쓰이는 그릇의 명칭과 개수를 적고 있다. “각신이하반공식”(閣臣以下飯供式)에는 대가를 따르는 실제인원의 한 끼 식사를 수록하였는데 그 음식이 대단히 소략하였고 신분과 직급의 차이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sup>19)</sup>

그 밖에도 “각종절가식”, “외별고 미전이하회록각종” 등에서도 여러 물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그 당시 왕실행사를 복원해내는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각종 물명에 대한 한글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4.2 병진년(1796) · 정사년(1797) 탄신경하

권33권의 내용은 1796년 병진년과 그 이듬해 정사년(1797)에 치른 혜경궁 홍

### 18) 수라반과차수정례(水刺盤果次數定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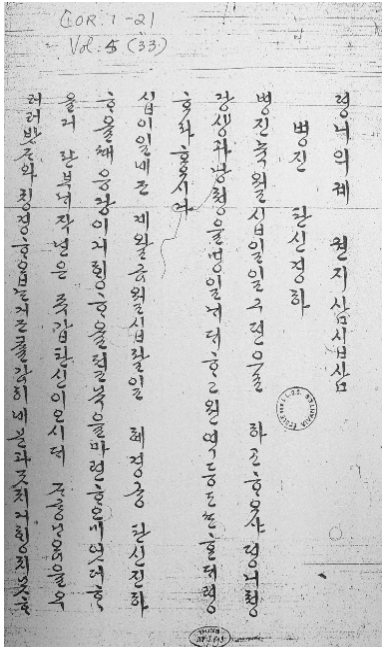
대가(大駕)가 본 수원부에 납신 당일: 소반과1차, 저녁수라1차, 밤다담1차, 난로 수시대령  
 대가가 원소에 납시는 날: 죽수라 1차, 아침수라 1차  
 대가가 원소에 납신 뒤: 소반과 1차, 점심 수라 1차  
 대가가 본 수원부에 돌아오신 뒤: 소반과 1차, 저녁수라 1차, 밤다담 1차, 난로 수시 대령  
 대가가 환궁하시는 날: 죽수라 1차, 아침수라 1차

### 19) 각신이하반공식

각신 8원 · 제조 1원 · 대장 1원 · 종사관 1원: 매 원 각 반(盤). 매 반에 밥1그릇, 국1그릇(값 1전 5푼), 적1그릇(뽕 반마리. 간혹 계적을 씌. 값 4전), 감장1그릇, 간장1그릇, 김치1그릇(이상은 본 수원부의 된장과 김치로 씌)  
 별수가장관 15원: 매 원 각 반. 매 반에 밥1그릇, 국1그릇, 감장1그릇, 김치1그릇  
 각속관 13원: 매 원에 밥1그릇, 국1그릇, 감장 · 김치(한테 모음) 2반(검서관 1원은 별반)  
 감관 5원, 별부료군관 2원: 밥 · 국(한테 모음)  
 통장 2원 · 체본사패장 8원: 밥 · 국(위와 같음)  
 약방 · 침의 · 화원 · 사자관 각 1원: 밥 · 국(위와 같음)  
 당별감 8원 · 중금 2원: 밥 · 국(위와 같음)

씨의 생일(6월 18일)찬치에 대한 것이다. 표지에는 “丙辰”이라 기록하였지만 실제로는 정사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권 32까지 연차적으로 이어오면서 같은 해에 치러진 탄신경하의 내용을 수록하고, 같은 주제로 비교적 내용이 소략한 이듬해의 탄신경하의 내용까지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54장중에

제 1장부터 46장까지가 병진년 탄신경하이고 제 47장부터 54장까지가 정사년의 내용이다.



<그림 2> 「명년의기」 권33 병진년 탄신경하의 첫장

병진년의 탄신경하는 1796년 6월 11일부터 이행된 여러 傳敎와 啓辭, 筵敎, 儀註, 節目, 詩文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6월 12일자에는 행사당일 侍衛節目이 있는데, 시위에 참여하는 각 직책과 인원, 복색과 의장, 위치 등을 정하였다.

탄신일인 6월 18일 당일에는 혜경궁의 탄신일을 맞아 표리를 올리는 의식, 표리 올릴 때 참여한 원자를 기특해하고, 혜경궁의 건강을 기뻐하는 내용, 우의정 윤시동의 노모가 백세 가까운 고령임을 알고서 그 노모에게 음식과 의복을 하사하고, 회갑을 맞는 윤시동의 아우를 복직시키는 내용과 應製를 전례대로 행하라는 명을 내리는 내용이 있다.

같은 날 정조는 영춘헌에서 축수 잔을 받들고 어제시를 지었으며 곧이어 여러 신하에게 갱진시를 지으라 하였다. 갱진시는 외빈과 제신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 외빈 40인 제신 34인 모두 74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진찬의 參班諸臣중 내빈을 제외한 거의대부분의 인물이 갱진시를 지었으며 수록방식은 병진 원행의

갱진시와 같은 체제로 어제시는 한글음만 적고 뜻을 諺書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의 갱진시는 모두 한글로 그 음을 적고 그 뜻까지 한글로 번역하였다. 번역문은 보다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

진찬상, 진찬소, 배설, 집행관, 參班諸臣의 명단과 床의 설치에 관한 내용도 대단히 흥미로운데 진찬상은 모두 59합<sup>20)</sup>으로 각 찬함에 들어가는 음식물의 내용이 일일이 수록되었다. 참반제신의 명단은 여러 신료의 부인인 내빈과 남자쪽인 외빈으로 구분하고 외빈은 혜경궁홍씨의 친가족 인물인 東班과 조정의 대신인 西班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외빈상과 조정상의 숙설처소는 장용위청이었으며, 내외빈상의 배설은 神門 안에 좌관을 설치하고 지의를 깔았고 조정상은 명정문 북월당에 휘장과 지의를 설치하였다. 각신 승사 시위상은 장용청이었으며 유생의 궤찬 장소는 丕闡堂이었다. 이 때 유생 430명에게 쌀밥 20동이, 대구 20미, 참외 430개가 지급되었다. 그 밖에도 장교, 사알, 사약, 액숙, 궁숙, 군병 등의 상차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정조는 이날 진찬시 거행한 장교 등의 이름을 별단으로 들이라 명하였고, 진찬

20) 진찬상이 59盒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57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찰떡·꿀찰떡·신감찰떡·석이찰떡·난찰떡 1합, 백설기떡·꿀설기떡·잣설기떡·깨설기떡·석이설기떡·신감채설기떡·송화설기떡·계피대추설기떡·황정설기떡 1합, 사색권모떡·사색절편·사색도내떡 1합, 대추주약·신감채주약·지초주약·치자주약·석이주약·무주약 1합, 오색산삼 지초색·은행색·감채색·연지색·송화색 1합, 창면 1합, 낭화 1합, 약밥 1합, 약과·만두과·다식과 1합, 연사과·사색차수·사색빙사과·사색요화 1합, 용안다식·여지다식·사당다식·민강다식·꿀병다식·송화다식·검은깨다식·황홀다식 1합, 생강편·오미자편·오색녹말편 1합, 인삼당·옥춘당·오화당·설당·어과자 1합, 사당·꿀병 1합, 민강·문동당 1합, 금전병·건포도·꿀대추·청매당 1합, 이편당·과견당·팥보당 1합, 용안·여지 1합, 천문동정과·맥문동정과·동과정과·길경정과·생강정과·돌죽정과·참외정과·복분자정과 1합, 앵두편·돌죽편·오미자편·황편 1합, 배숙 1합, 오미자고 1합, 돌죽고 1합, 유월도수정과 1합, 복분자화채 1합, 배·임금·사과·유월도 1합, 밤·대추 1합, 황율·호도·송백자 1합, 수박 1합, 참외 1합, 각색절육 1합, 편육 1합, 생선전·양전·간전 1합, 홍합초·해삼초 1합, 생복숙·전복초 1합, 황육느름이·생합느름이·양색란느름이·동과느름이·잡느름이 1합, 어채 1합, 수상화 1합, 육회 1합, 생복회·생합회 1합, 추복당 1합, 생치당 1합, 죽당 1합, 잡탕 1합, 붕어찜 1합, 생치찜 1합, 갈비찜 1합, 연계찜 1합, 개찜 1합, 꿀 1합, 초장 1합, 젓국 1합, 겨자 1합, 오미자수 1합, 꿀물 1합, 고명 1합, 장국 1합

을 거행한 정리당상 등에게 賞典, 성균관 유생의 응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유생들을 시상하였다.

이듬해인 정사년(1897)의 탄신경하는 한해 전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게 치러졌다. 혜경궁이 치르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신경하의 수록내용도 매우 소략하다. 특히 이해 6월 18일 정조는 “해마다 경신(慶辰)에 항상 조출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자교(慈教)를 받들어 두어 그릇 찬품이라도 나올 길이 없노라. 올해 이 달에 또 윤달이 있으니 ‘閏’이라 함은 ‘남다’는 뜻이므로, 무강한 축원으로 넉넉한 복록을 많이 곧 소자의 마음이노라. 다음 달 이 날을 기다려 마땅히 정성을 펴고 기쁨을 기록할 것이니, 경들도 또 들어와 참여하라.”<sup>21)</sup> 하교하여 윤6월 18일에 혜경궁 탄신 진찬을 베풀 것과 혜경궁의 뜻을 받들어 잔치를 조출하게 베풀 것을 명하였다. 실제로 내외빈이 참여치 말게 하였으며 잔치 당일날 진찬상 40그릇, 내입 9상 18그릇, 내외빈 10상 14그릇, 조정 7상 20 그릇, 18상 16그릇, 10상 10그릇 등으로 그 규모가 매우 줄었음을 알 수 있다.

#### 4.3 정사년(1797) 행행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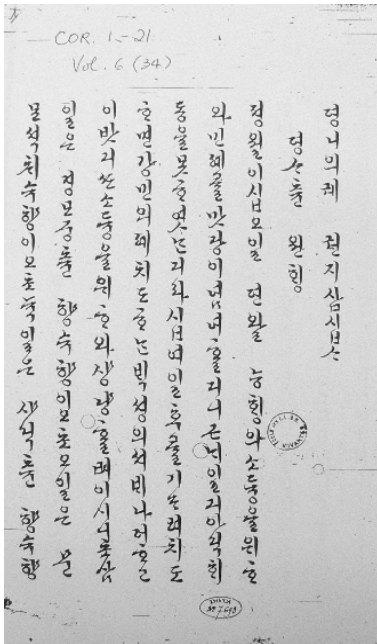
정사년의 원행은 봄과 가을에 걸쳐 2차례 이루어졌다. 정사년 봄에는 매년 거행해왔던 대로 현릉원에 전알하였고, 정사년 가을에는 장릉과 현릉원 두 곳에 전알하였다. 이 행행에 관한 기록으로 「명년의계」 권34에서는 정사년 봄의 현릉원 행행을, 권35와 권36에서는 가을의 장릉과 현릉원 행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권35 앞부분에는 병진년(1796) 가을에 장릉과 현릉원 행행을 계획하였으나 무산된 기록까지 수록되어 있다.

우선 권34에 수록된 정사년 봄 원행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당시의 원행 일정을

---

21) 명년의계 권33 제47장. “해마다 경신의 락양 쇼작을 나오옵더니 이번은 조교를 밧즈와 비록 두어 그릇 찬품이라도 나올 길히 업손디라 금년 이 둘의 쏘 윤월이 이시니 윤이라 흐믓 남다는 뜻이니 무강흐은 축원을 가지와 유여흐은 복록을 비오미 곳 쇼즈의 밧옹이라 님월 이 날을 기다려 맛당이 정성을 펴옹고 깃브를 기록호올디니 경등도 쏘 드리와 참여호라.”

한 눈에 알 수 있는 군령부터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덩니의궤」 권34 정사년 원행의 첫장

군령(軍令)

1월 29일: 출궁, 시흥현 행궁 주정, 화성행궁 숙소.

1월 30일: 원소 전알 친제, 환예 화성행궁, 화성행궁 숙소

2월 초1일: 시흥현 행궁 주정, 당일 환궁 이번 정월 29일 현릉원에 행행하실 때 예조·병조의 절목과 각 영문의 절목은 正祖 20년(1796, 병진)과 같이 마련하였다.<sup>22)</sup>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거행되는 현릉원 원행을 위하여 정조는 1월 25일부터 행행 시의 군사들 정비, 행행시 배종백관과 유도백관, 제향에 참여할 아헌관 등 임명, 제향에 쓰이는 각종 물품들에 관하여 명하였으며 관련기록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원행 시 발생될 폐단을 적발하기 위하여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1월 29일 출궁하여 행차하실 때 남관왕묘에 들러 관왕묘의 수직관을 변장으로 제수하고, 만안교에 이르러서는 교역을 감동하는 申洞 등을 불러 그 공로를 치하하시는 등 행차길에서 그 공로를 치하하여 시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출궁부터 환궁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방화수류정에서 이르러서는 정조가 직접 활을 쏘고, 신하들도 활을 쏘게 하여

22) 덩니의궤」 권34, 제2장-3장. 군령 금 정월 이십구일 출궁 시흥현행궁 주정 화성행궁 숙소 삼십일 원소 전알 친제 환예 화성행궁 숙소 이월 초일일 시흥현행궁 주정 당일 환궁(還宮) 금 정월 이십구일 현릉원 행행하옵실 때 예조 병조 절목과 각 영문 절목은 병진년과 같치 마련하옵다.

시상하였고,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 사람으로 한정하여 활을 쏘게 하고 시상하기도 하였다. 이 날의 상황을 묘사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역편춘성일미사(歷遍春城日未斜) 춘성을 두루 보고도 해가 아직 기울지 않고  
소정운물전청가(小亭雲物轉晴佳) 소정의 풍경은 한결 더 맑고 아름답구나.  
난기관보삼년묘(鑾旂慣報參連妙) 난기가 계속 연이어 세 번 맞춤을 알리니  
만류음중죽사화(萬柳陰中簇似花) 수많은 버들 그늘 속에 살쥔이 꽃 같구나.<sup>23)</sup>

서장대에 이르러서는 햇불 드는 훈련을 하는데, 그 절차 및 동원된 군사들의 수효와 거행 광경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월 30일 현릉원에 이르러서 정조는 원향에 참반하는 관원들을 살피고, 외남산에 흙을 보충하는 공사와 나무를 심는 일, 군사들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등 모든 준비에 철저함을 보였다. 현릉원에 전알한 뒤에는 원행에 수고한 관원 및 군사들을 시상하고, 당일 환궁하였다.

권35와 권 36은 가을에 장릉과 현릉원에 행행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이 기록은 병진년 가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행행은 능행과 원행이 겹하여 거행되는 것이므로, 모든 거행을 「園幸定例」에 의거하도록 명한 것이 특징이다.

장릉 행행은 英祖 10년(1734, 갑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길을 닦고 다리 놓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로 인하여 呂駿永과 鄭晚錫을 암행어사로 임명하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적발하게 하였다. 이 때 각 읍 수령들의 횡포가 狀啓를 통해 빗발치게 보고되자, 처음에는 행행이 끝난 뒤에 수령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끝내 파면하고 후임을 세우는 데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9월초부터 준비되었던 행행은 갑작스런 응주의 두후로 무산되고 만다.

장릉과 현릉원 행행은 병진년 가을에 계획되어 제반 준비도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정사년에 비로소 거행된 것이다. 병조에서 올린 군령을 통해 당시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당년의계」 권34, 제24장: 역편춘성일미사, 소정운물전청가, 난기관보삼년묘, 만류음중죽사화.

- 8월 15일: 출궁, 양천현 행궁 주정(晝停). 궐문에서의 거리 30리.  
장릉 전알 친제. 양천현 주정소에서 30리.  
김포군 행궁 숙소(宿所). 능소에서 5리.
- 8월 16일: 부평부 행궁 주정. 김포군 행궁에서 30리.  
안산군 행궁 숙소. 부평부 행궁에서 40리.
- 8월 17일: 구포 소주(小駐). 안산군 행궁에서 25리.  
현릉원 전알 친제 후 숙소  
구포에서 25리. 합 185리.
- 8월 18일: 화성부 행궁 숙소.
- 8월 19일: 친림 활쏘기 시험.
- 8월 20일: 시흥현 행궁 주정. 환궁.
- 금 8월 15일 장릉과 현릉원에 행행하실 때 병조절목과 각 영문 절목은 모두  
‘園所春幸式例’대로 마련하였다.<sup>24)</sup>

이후 이시수가 ‘式年 監試 初試 날짜가 환궁날짜와 맞물려 시험 마지막 날인 21일로 환궁 날짜를 미룰 것’을 아뢰어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다. 그리고 행행 때의 모든 일들은 병진년에 마련한 대로 하도록 하였다. 출궁하기 전에 ‘章陵親祭文’을 짓고, 陪從百官 및 留都百官 등을 정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거의 60년 만에 장릉으로 행행하는 것이어서인지 출궁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행행의 특징은 행차길에서 지은 御製詩와 致祭文이 많다는 점이다. 용양봉 저정, 양천관곽에서의 어제시와 故 영의정 金壽童, 金應南, 沈守慶, 金燧의 분묘에 대한 치제문이 그 예다. 그리고 양천 백성들이 고통 받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땅에 대한 세금 징수와 북한 평창의 환곡이 많은 것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주기도 하였다.

章陵에 이르러서는 친히 제향을 올리고, 능안부원군 자손 중 유학 구규석을

---

24) 『덩니의궤』 권35, 제15장: 팔월 십오일 출궁호오샤 양천현 행궁 주정호오시니 궐문으로 서 삼십니오 당능 던알호오시고 친제호오시니 양천현 주정소로서 삼십니오 김포군 행궁 숙소호오시니 능소로서 오리오 십륙일 부평부 행궁 주정호오시니 김포군 행궁으로서 삼십니오 안산군 행궁 숙소호오시니 부평부 행궁으로서 스십니오 삼칠일 구포 소주호오시니 안산군 행궁으로서 이십오리오 현릉원의 던알호오시고 친제호오신 후 숙소호오시니 구포로서 이십오리니 합 일십팔십오리오 십팔일 화성부 행궁 숙소호오시고 십구일 친림 시사방 호오시고 이십일 시흥현 행궁 주정호오시고 환궁 금 팔월 십오일 당능 현릉원 행행호오실 때 네조 병조 절목과 각 영문 절목은 다 원소 출행 식례와 궐치 마련호오다.

능참봉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능안부원군 구사맹과 그 부인의 묘에 근시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장릉 친제 뒤 현릉원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어제시를 짓고, 문렬공 趙憲의 牛渚書院과 정현공 尹又新, 문렬공 尹暹, 충강공 尹衡甲, 충간공 尹槩 등의 분묘에 대한 치제문을 지었다. 이 외에도 驪川尉閔子芳墓致祭文, 永新君怡墓致祭文, 咸原君顥墓致祭文, 淑媛趙氏墓致祭文, 和柔翁主墓致祭文, 領議政文簡公李天輔墓致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권 36은 8월 16일 부평부에서의 행적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즉, 16일 안산군으로 가는 내용부터 8월 21일에 환궁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추측컨대 현전하지 않는 권37과 권 38에 수록되어 있는 듯하다. 당시 행행에서 정조는 수많은 어제시와 치제문을 남겼으므로 이러한 글들을 수록하였을 것이고, 환궁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기록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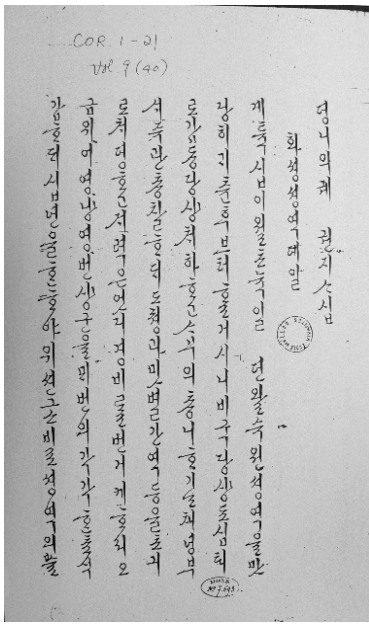
#### 4.4 화성성역

권40, 46, 47, 48은 “화성성역”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책 모두 표지에는 “城役”이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꾸랑의 언급대로 권39가 「화성성역의궤」와 마찬가지로 도판이 있는 卷首에 해당하고 권 40부터 본문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권48이 마지막 권이므로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화성성역”은 한문본으로만 알려진 「화성성역의궤」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문본 형태로만 남아있는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한글본 발굴이라는 의미도 있다.

화성성역의 내용은 크게 구분하여 성역이전의 계획시기, 성역시기, 성역이후의 시기로 구분 된다.

권40의 내용에는 城役 以前의 계획과 1794년 1월 7일 실제 공사가 시작된 이후 4월 6일까지의 기록이 있다.

12월 6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역에 관한 각종 계사, 전교, 연설, 관문 등이 전해지고 있다. 성역을 감독할 책임자에 대한 논의나 성역 전반의 일에 관하여



<그림 4> 「덩니의궤」 권40 화성성역의 첫장

채제공 등과 의논한 내용, 성터와 수원부에 대한 그림, 성의 제도에 대한 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편에 수록된 “수원에 성을 쌓는 것”에 관한 내용이 지금의 실정과 일치함을 크게 기뻐하며 그 후손을 성균관 채주로 증직시키는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정조는 조심태와 이유경이 화성 성터 등을 그린 도형을 올리고 보고하자 성 둘레와 공역의 진행 속도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성역에 소용되는 재목을 구하는 일과 고유제 및 상량할 때 필요한 상량문에 관해서도 아뢰었다. 정조는 화성에 성을 쌓는 계획에 대하여 丙下城華籌略으로 조목을 만들었다. 모두 8조목인데, 分數, 재료, 濠塹, 터다짐, 돌을 떠내는 일, 길을 닦는 일, 수레를

만드는 일, 성을 쌓는 일이 그것이다.

1월 4일에는 비변사에서 일관이 올린 화성성역 날짜 등을 보고하였고<sup>25)</sup> 돌뜨기 1월7일, 성터닦기 2월25일, 남북문루와 수문공사는 2월 28일로 그 날짜가 정해졌다. 이어서 총리대신 채제공이 성역을 감독할 여러 관리들의 임명에 관해

25) 두가지 날짜를 정해서 택일하는 방식이었는데 성의 문루와 수문공사 시작은 2월 28일 진시로 고쳐졌다. “화성(華城) 성역(城役) 시역(始役)호을 각 일(日)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곰 추척(推擇)호은즉 성지(城址) 기기(開基)는 정월 이십오일 묘시(卯時)와 이월 십삼일 묘시 길호옴고 남북성(南北城) 두 문루(門樓) 시역(始役)은 이월 십삼일 묘시와 십육일 진시(辰時) 길호옴고 수문(水門) 시역은 이월 이십오일 묘시와 이십육일 진시 길호옴고 부석(浮石) 시역은 정월 초칠일과 십삼일이 길호옴고 각각 시역호는 날 문저 고유제(告由祭)를 행호오리라 호오니 어느 날노 거행(舉行)호올디 던왈(傳曰) 성지 기기는 정월 이십오일 문루 시역은 이월십육일 수문 시역은 이십육일 부석 시역은 정월초칠일노 호계 호러[성문루(門樓)와 수문(水門) 시역(始役)은 이월 이십팔일 진시로 기부표(改付標)호다]” 「덩니의궤 권40 제27장.

아되고, 예조에서 고유제에 쓰일 축문의 형식을 아되고, 쓰일 제물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담당 관청에 하달하였다.

권46은 1795년 9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추측컨대 결락된 권41-45의 내용은 권40에 이어서 성역과정에 일어났던 각종 명령과 진교, 계사, 장계, 설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성역의 과정과 관련된 1년 6개월여의 일들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해당건물에 대한 설명을 실었고 마지막의 9월 9일에는 화성의 전체모습과 성 안팎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성의 둘레길(이하와<sup>26)</sup> 각 건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한 부분은<sup>27)</sup> 화성 각 건물의 명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화성성역 이후에는 監董한 신하들에게 시상하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였다. 특히 賞典을 정리의궐 당상관이 종류별로 나누어 책자를 만들어 비변사와 본 수원부에 보관하고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일성록」 등에 내용을 베끼게 하라고 명하였다. 실제로 「華城城役賞典」의 서명이 있는 책자가 규장각장서로 남아있다.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였던 1797년 1월 29일을 끝으로 「덩니의궐」의 화성성역 부분은 마무리된다. 이날 서장대에서 야간훈련을 생략하고 햇불 드는 별호령을 행하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성역에 들었던 물력구획, 실제 소요된 비용, 工匠實數,

26) 덩니의궐 권48 제20장. “한 성의 둘레를 통틀어 계산하면 주척(周尺)으로 27,600자이고, 보로 헤아리면 4,600보이다. 용성의 둘레는 663보이고, 용도의 둘레는 367보이다. 그리고 원성(元城)만 헤아리면 산 위는 2,944보 4자이고 평지는 1,019보 4자이며 그 나머지 635보 4자는 문루와 치(雉)·초(譙)·대(臺)·돈(墩)이 각각 점유한 터이다.”

27) 덩니의궐 권48 제21장. “문루는 넷이니 장안문(長安門)[북문]·팔달문(八達門)[남문]·창룡문(蒼龍門)[동문]·화서문(華西門)[서문]이요, 암문(暗門)은 다섯이니 남암문·동암문·북암문·서암문·서남암문이요, 수문(水門)은 둘이니 북수문[화홍문(華虹門)]·남수문이요, 적대(敵臺)는 넷이니 북문좌우적대·남문좌우적대요, 장대(將臺)는 둘이니 서장대·동장대요, 노대(弩臺)는 둘이니 서노대[장대(將臺) 뒤]·동북노대요, 공심돈(空心墩)은 셋이니 서북공심돈·남공심돈·동북공심돈이요, 봉돈(烽墩)은 하나요, 치성(雉城)은 여덟이니 북동치·서일치·서이치·서삼치·남치·동삼치·동이치·동일치요, 각루(角樓)는 넷이니 동북각루[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서북각루·서남각루[화양루(華陽樓)]·동남각루요, 포루(砲樓)[화포(火砲) 놓는 누]는 다섯이니 북동포루·북서포루·서포루·남포루·동포루요, 포루(舖樓)[치성 위의 군포루]는 다섯이니 동북포루[각건대(角巾臺)]·북포루·서포루·동이포루·동일포루요, 포사(舖舍)는 셋이니 중포사·서남포사[암문(暗門) 위의 집]·내포사이다.”

朔下式例, 雇價式例, 折價式例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 5. 결 언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글본 「整理儀軌」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일차적으로는 서지학, 국어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고문서학, 역사학, 한문학, 기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역주작업은 「자경년진작정례의궤」와 함께 한글의궤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날짜별로 기록된 덩니의궤는 지방관의 傳令이나 軍令, 陪從百官, 盤纏, 饌品 등 관찬사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朝鮮王朝 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園幸定例」 등에서 원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문들을 볼 수 있으며 역사서뿐만 아니라 등록, 의궤 등 관찬 기록물의 편찬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글의궤로서 또 다른 의궤인 「자경년진작정례의궤」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 純祖內外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자경전에서 進爵禮를 행한 사실을 기록한 의궤로, 한글본은 세자의 명으로 中宮과 世子嬪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글본 「덩니의궤」 역시 중궁을 비롯한 왕실 여성 즉 內命婦의 열람용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왕실의 기록문화뿐만 아니라 독서문화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병진년과 정사년 원행에 대한 독립된 기록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한글본 「덩니의궤」에 실린 기록은 당시의 원행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글본 「덩니의궤」나 「자경년진작정례의궤」 외에도 한글로 필사된 의궤가

국내외에 현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예정이다.

이 책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海外典籍文化財研究會’에 의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유일한 한글의례로 알려졌던 「자경던진작정례의례」가 편찬될 당시 한문본 6부와 한글본 3부가 동시에 만들어졌고<sup>28)</sup> 한글본은 한문본의 언해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글본 「덩니의례」 역시 한문본 의례나 등록 형태의 번역대본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자경던진작정례의례」가 동일한 내용의 한문본 「慈慶殿進爵整禮儀軌」를 통해 한글과 한자용어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듯이, 한글본 「덩니의례」 역시 내용의 원문을 대부분 「日省錄」을 비롯한 관찬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일정부분 복원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더욱이 한글 언해의 역사적인 측면과 한자로 표기된 물품명, 지명, 각종 용어 등이 한글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한글본 「덩니의례」를 대상으로 삼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문본과 언해본의 관련성 및 각각의 편찬목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곧 한글 언해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닐 것이다.

## <참고문헌>

### <原典>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日省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

28) 日省錄, 純祖 28년(1828) 5월10일, “整禮儀軌所以整禮儀軌刊印繕寫眞書六卷諺書三件封入達”

- 「承政院日記」(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  
「園幸定例」(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규 12209-1).  
「園幸乙卯整理儀軌」(影印本)(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整理儀軌」(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 COR.1-21).  
「華城城役儀軌」(影印本)(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著書 및 論文>

- 김도경, 주남철.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공포부재의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0권 1호(1994).  
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김상보, 이성우, 한복진.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조리면에서 본 수리상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4집 2호(1989).  
김상보, 이성우, 한복진.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조리면에서 본 족상, 미음상 및 현룡원에서의 상차림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4집 4호(1989).  
김연주. “<영조의궤>의 용기명 표기 해독.” 「민족문화논총」 제25집(2002).  
김연주. “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 연구-표기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45집(2004).  
김춘련. “18세기 궁중연회음식고-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집 2호(1986).  
모리스 꾸랑 原著, 이희재 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1997.  
문장현. “정보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 조선시대 의궤연구: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병선. 朝鮮朝의 儀軌-과리所藏本과 國內所藏本の 書誌學的 比較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박상국. “부록1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文化財」 제36호(2003).

-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호(2002).
- 송혜림. “朝鮮朝 嘉禮都監儀軌의 書誌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제-〈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17집 1호(2001).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서울: 돌베개, 2002.
-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차자표기 연구(1)-조선후기 복식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복식』 제15호(1997).
- 유완상, 박천우. “<화성성역의궤>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소 논문집』 제2권 1호(1993).
- 이성우, 한복진.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나는 음식명, 식기명, 조리기구명.”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4집 4호(1989).
- 정경희. “조선후기 園所都監儀軌의 특징.”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정병욱.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및 서지.” 『문학한글』 제11·12호(1998).
- 천혜봉, 이정섭, 박상국. “부록2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프랑스 기메박물관 및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분.” 『文化財』 제36호(2003).
- 최홍규. “<화성성역의궤>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서울: 일지사, 2005.
-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한국학보』, 서울: 일지사, 2002.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서울: 효형출판, 1998.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서울: 일지사, 2005.
-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